



미 증시, 장 중반 이후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낙폭 축소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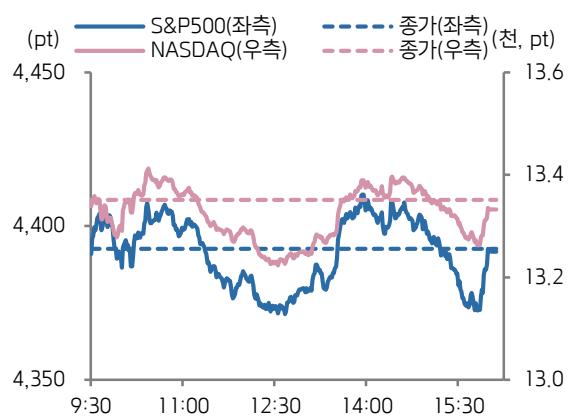
18 일 (월) 미국 증시는 국채 금리 상승 부담, 중국의 혼재된 경제지표 등으로 장중 하락 압력이 높아졌으나, 이후 1 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속 대형 테크주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한 채로 마감. 가장 전 실적을 발표한 BOA는 EPS 0.8 달러(예상치 0.75 달러)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S&P500은 장 초반 0.1% 하락 출발. 이날 증시 부담 요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부정적인 뉴스플로우, 중국 3 월 소매판매 지표 부진(YoY -3.5%, 예상 -1.6%) 등이 있었음.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등 업종이 지수 하락을 견인한 가운데, 반도체(필라. 반도체 지수 +1.9%), 에너지(+1.5%) 업종 등은 상승하며 지수는 -0.5~+0.2% 대의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하며 소폭 하락 마감(다우 -0.11%, S&P500 -0.02%, 나스닥 -0.14%, 러셀 2000 -0.74%).

부활절 연휴 및 주말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부정적인 뉴스플로우는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도시 리비브에 대한 5 개의 미사일 공격,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로 군사 수 천명을 추가 파병했다는 소식들이 있었음. 중국 실물 지표는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지표 호조로 경제 성장률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코로나 락다운 여파로 소매판매가 둔화됨에 따라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

업종별로 에너지(+1.5%), 금융(+0.6%), 경기소비재(+0.3%) 등이 상승한 반면, 헬스케어(-1.1%), 필수소비재(-0.8%), 유틸리티(-0.5%) 등은 하락. 에너지(+1.5%)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상승한 유가에 힘입어, 금융은 금리 상승,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상승. 다우 운송 지수(-0.3%), 다우 항공 섹터 지수(-1.2%)는 하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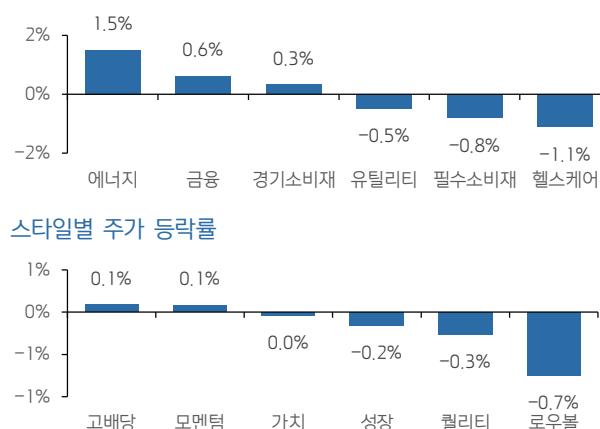
뱅크오브아메리카(+3.4%)는 실적 및 가이던스 서프라이즈에 급등했지만, 찰스 스왑(-9.4%)은 부진한 실적에 의해 급락. 트위터(+7.6%)는 테슬라 CEO 머스크의 지분을 15%로 제한시키는 방침 발표하며 급등, 엔비디아(+2.5%), 브로드컴(+2.2%) 등 반도체주들은 최근 약세에 대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 한편 애플(-0.1%), 테슬라(+2.0%), 알파벳(+0.6%) 등 대형 기술주들은 실적 기대감 유입에 소폭 상승.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391.69	-0.02%	USD/KRW	1,234.20	+0.36%
NASDAQ	13,332.36	-0.14%	달러 지수	100.79	+0.29%
다우	34,411.69	-0.11%	EUR/USD	1.08	-0.25%
VIX	22.17	-2.33%	USD/CNH	6.38	-0.04%
러셀 2000	1,990.13	-0.74%	USD/JPY	126.98	+0.41%
필라. 반도체	3,085.19	+1.88%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798.43	-0.31%	국고채 3년	3.000	+4.7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353	+3.3bp
Eurostoxx50	3,848.68	+0.54%	미국 국채 2년	2.438	-1.6bp
MSCI 전세계 지수	690.21	-0.07%	미국 국채 10년	2.835	+0.8bp
MSCI DM 지수	2,959.67	-0.03%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112.90	-0.4%	WTI	107.66	+0.66%
MSCI 한국 ETF	68.68	-0.07%	금	1980.6	+0.2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6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35.7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1.9%)이 국내 반도체주에게 미치는 영향
2. 국내 리오프닝 관련 업종 내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순환매 지속 여부
3. 장중 미국 금리와 원/달러 흐름에 따른 외국인 매매패턴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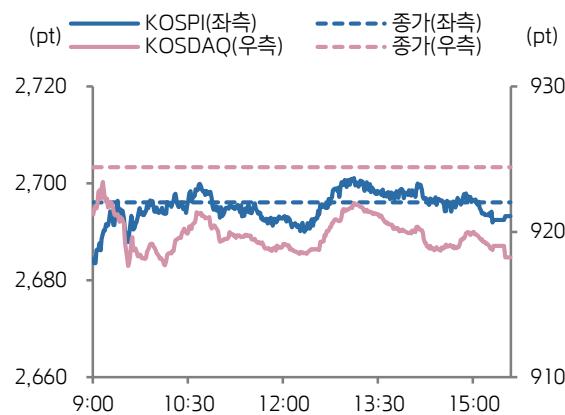
현재 신규 악재성 재료는 부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연준 긴축이라는 기존 악재성 재료가 시장 금리 상승세와 달러화 강세를 지속시키고 있는 모습. 이 같은 맥으로 환경은 증시에 취약성을 제공하는 요인이지만, 전거래일 미국 증시 움직임에서 추정해볼 수 있듯이 시장에서도 내성이 생겨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교전 강화 가능성에 따른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부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를 증시에 한층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 다만, 미국 장 마감 후 매파 성향의 끝단에 위치해있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75bp 금리 인상은 베이스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연준 입장에서도 한번에 50bp 이상의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 둔화를 격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를 감안 시 현시점 이후 시장 금리의 추가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

전거래일 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함에도, 미국 증시의 장중 반등 효과, 개별 실적 이슈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반등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미국 증시에서 BOA(+3.4%) 등 금융주들이 견조한 실적 기대에 힘입어 동반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1.9%)도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국내 관련 주들에게 우호적인 수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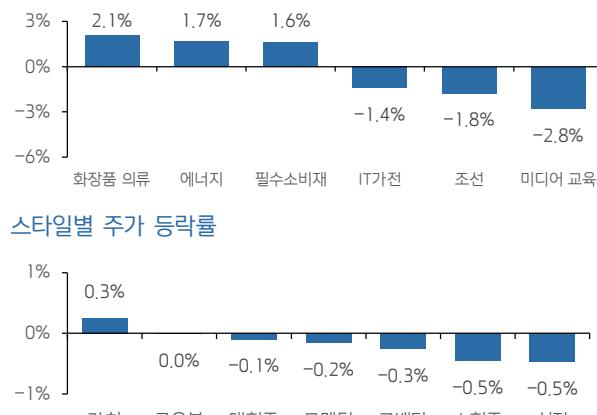
한편, 최근까지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수 상단이 제한된 채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 모습. 그 가운데 업황 개선 가시화 여부를 떠나서 수급이 비어있거나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군들 위주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Ex: 리오프닝 관련 업종들 간). 박스권 장세에서는 순환매 플레이가 알파 창출의 대안이긴 하지만, 현재의 순환매 속도는 기존 순환매 장세보다 빠르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마켓 타이밍 매매는 지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